

세계적 음악가 만든 통영의 자연, 여행객을 붙들다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11> 음악가 윤이상과 통영시



지난 2010년 통영시 도천동에 들어선 윤이상기념관(도천테마기념관)은 전시실, 메모리홀, 야외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조명할 수 있다.

한국음악-유럽음악 독특하게 결합

40대 이후 작곡 전념 154편 지어

도천기념관 자필 악보 등 전시

윤이상 삶·음악 한눈에 조명

폭력·인권문제 음악으로 환기

동베를린간첩단 육고 치르기도

“윤이상 씨는 매우 따뜻한 사람, 생각이 매우 시적(詩的)인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의 음악은 그가 자신의 문화 속에서 들었던 소리와 유럽 문화에 적응하면서 들었던 소리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한국 음악과 유럽 음악을 독특하게 결합한 것이다. 그의 음악은 또한 그의 인품을 반영한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유럽에서 살면서도 고향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문화,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도 알아가도록 하고자 마음을 썼다.” (‘GRAND WING’, VOL.06)

위 글은 미국의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의 윤이상에 대한 평이다.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는 윤이상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을 지휘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 “내 생각에 윤이상이 의도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음악을 넘어선 무엇이다. 다른 국가와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일은 윤이상의 크나큰 소망이었다”

“한국 음악과 유럽 음악을 독특하게 결합한 음악가”라는 수사는 윤이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음악의 정체성과 본질, 왜 음악을 하는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 한마디로 윤이상(1917~1995)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음악가다.

윤이상의 고향은 경남 통영이다. 통영은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한 예술의 도시다. 유치환, 유치진, 김춘수, 박경리, 김상옥, 전혁립의 고향이 이곳이다. 남해의 집푸른 바다와 풍광이 이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북돋았을 것은 불문가지다.

통영(統營) 지명은 선조 37년(1604년)에 설치한 삼도수군통제영에서 비롯되었다. 오랫동안 총무와 분리돼 있었으나 1995년 통영시로 통합되었다.(혹자는 통영 면적이 넓어 통합시군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반도 끝자락의 섬, 바다, 물이 어우러진 지형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

역설적이게도 통영(統營)은 한자의 의미상 다분히 ‘규율’의 뜻이 담겨 있다. 이와 달리 음성적인 면에서는 자유와 리듬의 이미지가 깃들여 있다. 어휘에 모두 5개의 모음과 ‘ㅇ’이라는 3개의

음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의 소리는 음악’이라는 명제에 기댄다면 바다와 파도, 바람이 한데 어우러진 소리는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선율일 것이다. 윤이상의 음악에 통영의 자연이 투영되어 있는 이유다.

통영시 도천동에는 윤이상기념관(도천테마기념관)이 있다. 지난 2010년 생가 인근에 건립된 기념관은 전시실, 메모리홀, 야외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자필 악보, 작곡메모, 안경, 바이올린, 첼로와 같은 소품에는 치열했던 그의 음악혼이 고스란히 깃들여 있다.

“예전의 통영은 관광도시였다. 주로 단체 관광 위주로 잠시 왔다 스쳐가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 친구, 연인 단위로 이곳을 찾는다. 도시의 틀이 여행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구석구석 통영의 속살을 체험한다.”

윤이상기념관 이종도(49) 팀장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이어서 “시민들과 지역 리더들의 예술에 대한 안목이 높아 문화 시설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보낸다”며 “윤이상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브랜드다. 그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 통영은 세계 음악도시로의 발돋움을 구제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했다는 자부심은 지역의 큰 자산이다. 시는 2014년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 윤이상을 매개로 문화도시 브랜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윤이상국제음악공쿠르, 통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당, 통영시민문화회관, 윤이상기념관 등을 수탁 운영한다.

2015년 올해는 윤이상 타계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 뿐 아니라 통영국제음악제의 오랜 후원자였으며 국제음악당 건립에 이바지했던 고 박성용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 타계 10주년이기도 하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펼쳐진 통영국제음악제는 두 ‘거인’의 삶을 조명하려는 차원에서 여행, 항해의 의미를 지닌 ‘voyages’(프랑스어), 한글로 ‘여정’을 주제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윤이상은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다. 40대 이후 프랑스, 독일로 유학을 떠나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이후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통영국제음악당 전경.



윤이상기념관 전시실 내부.

1967년 동베를린간첩단 사건(당시 동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유학생과 예술인들을 탄압한 공안 사건)에 휘말려 육고를 치렀고, 그때의 상처는 이후 그의 삶의 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윤이상의 ‘이상’은 단순히 음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었다. 폭력과 인권 문제를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환기시키는 데 혼을 기울였

다. ‘광주여 영원히’, ‘화염 속의 천사’는 그 같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듯 음악가로서의 그의 ‘이상’은 인류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동양적 가치를 서양음악에 접목하는 것이었다. 특히 72년 뮌헨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오페라 심청’은 전 세계에 한국과 그의 음악적 위상을 여실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랐어도 그는 치열하고 성실하게 창작에 매진했다. 어느 분야든 이름이 알려지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만년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철저히 곡을 쓰는 데 전념했다. 윤이상이 “내 인생의 출발점은 40세”라고 밝힌 대로 그는 40대 이후 154편을 작곡했다. 1983년 베를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탄생 100주년기념곡으로 ‘교향곡1번’을 위촉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위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는 “윤이상은 음악만 하기에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언어가 끝나는 모든 곳에서 음악은 시작되고,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음악은 표현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윤이상을 만든 건 8할이 통영의 바람이었다.

/글=통영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념실에 전시돼 있는 자필 악보.

대한인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관남로, 한화생명, 구.한미쇼핑, 동부소방서